



www.at.or.kr

베트남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8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8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베트남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4. 주류 (맥주(캔))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맥주(캔)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6. 소스류 (드레싱)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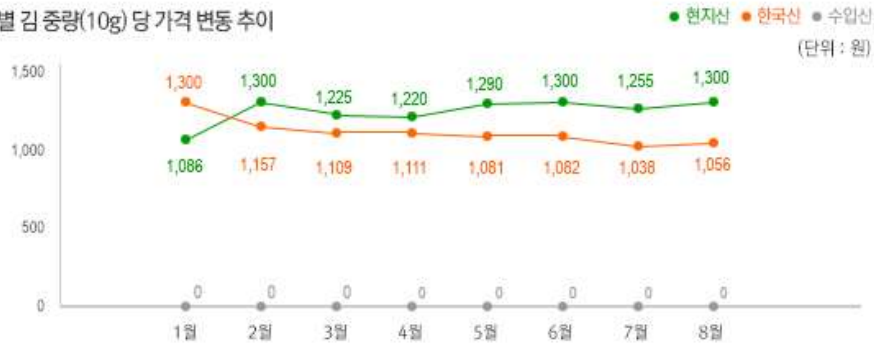
※ 베트남 동외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9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00베트남 동=4.95원

1~8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베트남



1. 김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2. 음료류 (과채 주스)

2)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3. 면류 (라면)

2)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베트남 동외 원화 환산 시 KEB하남은행 8월 29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00베트남 동=4.95원

1~8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베트남



4. 주류 (맥주(캔))

2) 원산지 별 맥주(캔)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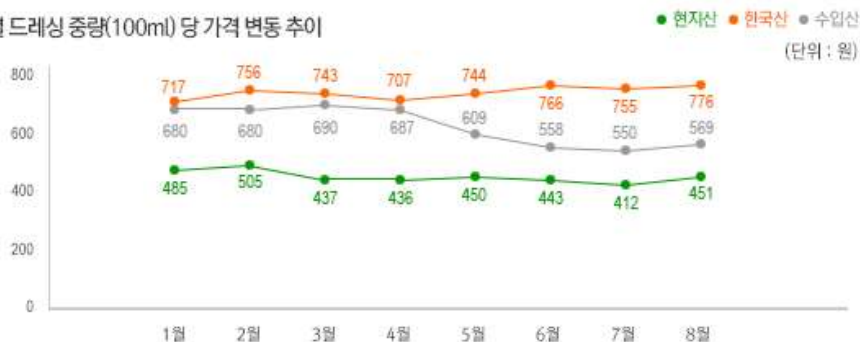
5. 제과류 (비스킷류)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6. 소스류 (드레싱)

2)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베트남 동외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8월 29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작성, 100베트남 동=4.95원

기타 가공식품

수요 감소 ▼ “ 오리고기보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선호해 ”

베트남 내 오리고기를 포함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각종 육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Chan Thanh Company Limited 의 담당자 Ms. Hà에 따르면, 냉동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오리고기를 주로 특별한 가족모임이나 행사에 먹는 요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소 식사 시에 섭취하는 육류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베트남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일 때 오리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현재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오리고기보다 베트남 소비자에게 입맛에 더욱 잘 맞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냉동 오리고기]

수요 상승 ▲ “ 중·장년층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홍삼조제품 ”

베트남에서 한국의 홍삼농축액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Linhchinhapkhau.vn의 담당자 Mr. Tien에 따르면, 최근에 베트남에서 홍삼식품은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홍삼은 건강을 중요시하며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그 이유는 한국 홍삼의 품질이 베트남 홍삼의 품질보다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삼의 수요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 사이에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산 홍삼농축액]

신선식품

수요 상승 ▲ “ 품질경쟁력으로 인한 베트남 소비자에게 마음을 사로잡은 영지버섯 ”

한국의 영지버섯을 포함한 다양한 버섯을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는 CÔNG TY TNHH QUẢNG CÁO & TIẾP THỊ FIRST MARCOM의 담당자 Mr. Lã bot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베트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베트남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 중 특히, 한국산 영지버섯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다른 버섯들보다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주고 있어 지속적으로 인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기를 유지하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선 영지버섯]

음료류

수요 감소 ▼ “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한국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

베트남의 유아식품, 건강식품 및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전문 온라인 유통업체인 Shopbabyfun.vn의 담당자 Mr. Nam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산 프로바이오틱스 음료의 수요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한해서는 한국과 영국, 호주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산 제품이 영국과 호주 제품에 비해 판매량이 낮았고 더욱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 제품은 현재 베트남에 유통된 기간이 길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며 서양 브랜드에 비해 마케팅 활동도 적게 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주요 구매층은 주로 1 ~ 3세의 아이를 가진 부모로 품질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품질적 우수성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알린다면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음료]

수요 감소 ▼ “ 포장품질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커피 ”

베트남에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는 PAFO의 담당자 Mr. Tuan에 따르면,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소비자 및 수입·유통 업체들은 베트남의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커피 구매 시 포장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기술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고 적은 화학물질이 첨가된 포장지의 유럽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현지 소비자 들은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제품들의 포장기술이 덜 발달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있어 수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유럽산 제품들이 우수한 포장품질 외에 다양한 커피를 취급하는 것도 한국 커피의 낮은 수요를 보여주는 이유라고 답했다.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